

<지난주 말씀 & 서론>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방향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을 합니까? 문제에 반응합니까, 사건에 반응합니까, 세상에 반응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에 반응합니까? 내 자존심에 반응합니까?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인생을 두고 반응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고 이 믿음을 통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림자를 실제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가축, 방주, 유월절 양의 피의 그림자를 믿음을 통해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 사람을 세상이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담고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불과 칼과 돌이 그들의 믿음을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불과 칼과 돌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답이 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답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증인입니다. 실상과 증거에 대한 증인이고, 살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잘못을 해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입니다. 이 사람은 237과 5000종족이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향하는 망대로, 이 방향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 가는 여정 속에 후대에게 남길 이정표가 남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증거의 증인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1.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는 그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히12:1상)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실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상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증인들을 따라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1하-2상)

믿음을 따라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비밀이 바로 믿음의 주입니다. 이 주인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경주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골인 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반드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소홀하게 가거나 불신앙하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달리면 그 주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모를 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죄수에게 하는 사형집행의 틀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야 합니다.

니다.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12:3)

오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골인지점이 없다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영광을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참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히12:4-5)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를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도록 징계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선 안되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꾸지람을 듣거나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가뭄만 한 경주입니다. 뛰어 볼만한 경주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히12:6)

이 말은 아들들에게만 가능한 생명적 관계가 된 자에게만 허락된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응답이고 기쁨입니다. 생명적 아들, 믿음의 얻어진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응답이요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2.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히12:7-8)

징계는 아들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뭐가 안될까?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비밀이 이 징계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히12:9)

우리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자녀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생아가 아니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히12:10)

그들은 바울 팀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오히려 감사거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핍박도 나를 온전케 하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무릇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12:11)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열매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원망부터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응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가는 여정에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복자로서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히12:12-13)

오늘 피곤한 손, 연약한 눈을 보십시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 여러분의 연약과 낙약에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손이 망가지고 발이 망가져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고치셔서 이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7.7.7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 나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는 믿음의 방향, 목표, 대상, 실체입니다. 이 믿음의 주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그림자를 실상과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케 되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해방입니다. 믿음은 법적으로 해방된 사실을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재창조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살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이 나의 24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24바라볼 때 예수가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나의 미래 방향이 보입니다. 이것이 찾아져야 합니다. 이게 보일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것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사생아가 아니고 친자녀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걸어가는 여정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어 가는 것입니다.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